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참 의미

(히10:19~25)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참 의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구약의 옛 언약, 대제사장, 제사법,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속죄제로 인한 번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과, 구약의 번제단에 각이 떠져 오르고 불에 살라졌던 소나 양의 번제물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먼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소와 양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흡수해서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소나 양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심으로써 맺게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이 죽을 때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관계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는 결국 이 관계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관계도 다 죽고, 이 관계의 범위는 사람에 대한 관계, 가족이라든지 이웃과 친구 친척뿐만 아니라 단체 나라와 민족, 모교, 내가 속한 동호회, 이런 인간의 단체는 물론이고, 관계라는 게 마틴 부버가 얘기했지만 '그것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물에 대한 관계, 돈, 집, 재산, 명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다 죽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물건까지도 다 포함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죽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까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관계를 끊게 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써 내가 관계를 끊은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나 이웃,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실 때 나를 통해 관계하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을 때, 그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같은 의미에서 마르틴루터가 Daily Baptism, 날마다의 세례를 얘기해도, 둘 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실제로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죽은 겁니까?
우리의 인격이 죽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닌 '나'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 그 몸이 무엇에 대한 등

가(等價)입니까? 뭐와 일치합니까?
나의 인격과 일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몸이 걸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몸의 죽으심을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죽은 것이고 인격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관계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계가 죽은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같이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곧 인격의 죽음을 말하고 마음의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될 일들인데, 그게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격이 피를 흘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서 찢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찢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를 알려면 내 인격, 내 마음에서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뭐에요?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피를 다 흘려야 될 일을 대신하신 것인데, 우리 인격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일어나야 될 일은 생명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말이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인격의 생명이 뭡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생명,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인데,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뭐죠? 생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생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뛰도록 명령하고, 우리에게 생(生)해야 될,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생각하고 살아서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를 명분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있잖아요, 나인 성 과부에게 있어서 죽은 외아들이 생명이에요, 그 옛날 여자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 과부로서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아들의 존재가 나인 성 과부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외아들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돼있나 하면, 이 외아들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근거가 됩니까?
평생 사업을 해서 사업체를 하나 일궜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가 망하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체가 살아야 될 이유였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열 마디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도저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인격, 생명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면서.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생명들이 갖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이게 우리 인격의 생명인데, 이게 우리 인격의 피요 마음의 핍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왜 피아니스트에게서 피아노가 빠져나가야 되고, 나인 성 과부에

게서 그 외아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생명인 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죽은 생명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은피를 뽑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혀 밑 어느 부분을 찔러서 몸속에 있는 사혈을 빼내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개운해지고 젊어지고 혈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좋다고 해서 혀 밑의 부분을 찔러 피를 한 바가지나 쏟아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마귀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대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선악을 판단하게 하면서 가지라고 해서 갖게 된 것들이 다 잘못된 생명이고, 죽은 생명, 죄악 된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건데,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가야 되고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격의 생명이 뭐냐? 생명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왜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느냐?
죽은 생명이고 죄악 된 생명이고 악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마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깁니다.
악한 양심이 뭐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때문에 살고 피아노 때문에 웃고 울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 이게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나인 성 과부가 외아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그 외아들 때문에 살고 외아들 때문에 움직이고 외아들 때문에 웃고 울면서도 그것이 악하고 죄악 된 것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자기의 사업체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사업체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도, 그 상태가 악한 줄 모르는 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처럼 독립투사 같은 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라 때문에 웃고 나라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것이 죄악 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내가 가족 때문에 움직이고 가족 때문에 뛰고, 가족 때문에 울고 웃는 이게 악학 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명, 인격의 피, 우리 마음의 잘못된 피를 다 뽑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당하면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서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았고, 다른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며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 그대로 다 죽은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왜 찢기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악하고 죽고 잘못된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맺어서 그래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좋아하면서 마음에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육체로부터 찢겨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종의 관계, 즉 육체가 가는 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내 마음이 육체에 살처럼 붙어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자꾸 전인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육체에 예속되어있는 상태를 전인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육체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석서들을 보면 이 구분이 없어요.
자꾸 전인적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다 허물어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육체가 살아있지마는 우리 마음은 육체에 매여서 육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 다시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반응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자꾸 떠올립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예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안과 밖의 의미가 뭡니까?
또, 두 번째로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움과 깨끗함의 영역은 외식, 불법, 행위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본문의 말씀은 행위가 깨끗해졌다는 얘기에요.
행위가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행위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함과 더러움을 행위 차원에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위는 율법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피, 더러운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돈이 들어있다, 돈을 벌고 사회적인 엘리트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서, 겉으로 볼 때 율법과 맞춰진 행동을 하니까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에서 죽은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죽은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명예가 좋아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사업이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어요.
육체로 만나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버리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이유에요, 만났다는 증거가 또 그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세상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주십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을 맑은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행동이 내가 육체를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게 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직접 반응하게 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육체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실 때 그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그것이 깨끗해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란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풍성한 믿음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과 기쁨의 근거가 되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걱정될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생명으로 연결되려고 하고 있구나, 죽은 생명이 다시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돈이 없지만 우선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평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나서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돈 없는 상황에 대해 관계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따라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돈은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이 평강과 기쁨이 돈이 없어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는 게 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참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지구 위에서의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죽어버렸던 그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모인다는 것은 백 명, 천 명, 만 명, 예배당에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런 모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런 모임은 없었어요.
가정교회의 모임이에요, 가정교회.
가정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상대방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상대방에게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 하는 걸 볼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나한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상대방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 같이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든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쩔쩔맬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거기서 힘을 받고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죽은 생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마음이 육체에 예속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에게로 예속된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일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게.
피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자식이 들어와 있고, 가족이 들어와 있고, 사업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주님의 이 피를 먹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성찬식의 의미를 재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몸에 매여서 몸이 만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마음으로부터 찢겨나가서 주님의 몸이 찢기셨으니까 내 몸이 내 마음으로부터 찢겨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고 말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고,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의미.
찢기신 몸이 뭡니까,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찢겨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명, 내 인격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그 원인, 그 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흘리신 피의 능력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능력과 권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몸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역사함으로써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